

2030년까지 기업 인공지능(AI) 활용률 70%까지 올린다

-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개최
- 산업부, AI로 산업을 대전환하기 위한 ‘산업 AX 확산 방안’ 발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학계·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산업 AX 확산 방안, 민간의 투자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은 그 자체로 산업적 가치가 엄청날 뿐 아니라, 중요한 기반 기술로써 산업 전반에 매우 큰 전후방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산업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산업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다. 앞으로 ‘산업 AX 3대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31% 수준인 기업 AI 활용률을 70% 수준까지, 현재 5% 수준인 제조현장 도입률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산업 AX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 계획, 개발,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 전반에 AI 적용 → 생산성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

① **300개 산업 AX 선도 프로젝트**: 수요기업은 물론 AI솔루션 공급기업, 로봇·장비 생산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연구개발(R&D), 금융,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는 AX 선도 프로젝트를 2027년까지 주요 제조·서비스업 대상으로 300개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그중 25개를 다음 달에 우선 선정한다.

②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 산업부는 수요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SW 패키지 개발, 팹리스 기업에 대한 인프라·금융 집중 지원 등을 포함하는 「AI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③ **산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업들의 데이터를 플랫폼 중앙에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 제공 기업의 동의하에 기업 간 연결·공유만 지원함으로써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한 유럽연합(EU)의 「GAIA-X」 플랫폼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산업 실정에 적합한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주요국의 탄소 규제 리스크가 큰 5대 업종(철강·알루미늄, 배터리, 자동차, 가전, 섬유) 중심으로 2027년까지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후 주요 산업의 공정·공급망 데이터까지 포괄하도록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3대 프로젝트 외에도 AX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입지·인력·세제·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입지>AI 특화단지 조성, <인력>사내 AX 대학원 설치 등 기업 맞춤형 AX 전문 인력 양성, <세제>AX 핵심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고, <금융>AI 분야에 3.5조원+α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AX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AI산업 정책위원회’ 아래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AX 얼라이언스’, 법·제도 과제를 논의하는 (가칭)‘산업AX 법·제도 포럼’ 등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고, 산업 AX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확대, (가칭)「산업인공지능법」 제정도 추진키로 하였다.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부처 안건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가AI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담당자	서기관	이디도 (044-203-4211)
		담당자	사무관	이재호 (044-203-4215)



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